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

남 기 현*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과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제스추어 언어인 수화에서 공간은 수화 단어가 산출되는 물리적 공간임과 동시에 명사 배열, 대명사적 지시, 일치동사 등이 실현되는 언어적 장소이다(Bellugi, 1990). 즉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는 통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화의 공간의 기능에 대한 기술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칭, 지시 표현, 지시적 이동, 동사의 주어 목적어 일치, 비교 표현 등을 중심으로 공간의 통사적 기능과 각각의 실현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의 주된 기능인 지시표현은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요소임으로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농인들의 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수화가 수화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농인, 한국수화, 수화 공간, 인칭, 일치동사, 지시물, 시각-제스추어 양식.

1. 서론

수화는 산출(production)과 지각(perception)에 있어서 음성언어와 매우 다른 양식(modality)이다(Hulst & Mills, 1996).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간(space)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은 시각-손(visual-manual)의 양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미국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는 본질적으로 공간적 매체(medium)이고 동시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조음되며 손뿐만 아니라 얼굴과 신체,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층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의존하여 문법적 체계를 정교하게 한다(Supalla, 1991). 이런 점에서 수화 공간은 물리적으로 음성언어의 성대, 구강과 같이 소리가 산출되는 조음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화에서 공간은 수화가 산출되는 물리적인 의미 외에 그 자체가 언어적 기능을 한다.

* 교신저자(chironam@hanmail.net)

미국수화에서 수화 공간은 통사와 담화에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명사 배열, 대명사적 지시, 동사일치, 대용적 지시, 담화의 지시적·공간적 틀을 위해 사용된다. 담화 안에서 소개되는 명사들은 수화 공간의 특정 지점들과 관련된다(Bellugi, 1990). 대명사적 지시의 경우에는 담화 안에서 비록 다른 많은 수화들이 끼어들더라도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할 때 특정 위치를 다시 가리킨다. 또한 동사일치 체계(verb agreement system)는 대명사 체계와 같이 본질적으로 공간화된다. 일부 동사는 수화 공간에서 임의의 공간들 안에서 이동한다.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는 공간적 지시들은 나타냄으로써 인칭이나 수를 표지한다.

이처럼 수화 공간은 통사적 기능으로써 의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문법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수화에서 공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여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 KSL)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이 통사적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과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개관

1. 공간의 개념

수화의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tton-Spence, 1998). 통사적 공간(syntactic space)과 지형적 공간(topographic space)이 그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수화하는 공간은 동일하나 언어에 의해서 매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다. 먼저, 수화자는 지형적 수화 공간 안에 실세계의 것들을 배치한다. 예를 들어 수화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지역의 쇼핑몰을 소개하고자 할 때, 사물들의 위치관계에 의하여 사물들을 배치한다. 만약 교회가 과일가게 반대편에 있고, 과일가게는 우체국 다음에 있다면 수화자는 그것들을 수화 공간에 위치시킨다. 이에 반해 통사적 수화 공간은 실세계의 아날로그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화자가 ‘형제’를 소개한다고 할 때, 수화자는 임의로 수화하는 공간에서 왼쪽은 ‘형’을, 오른쪽에는 ‘동생’을 위치시킨다. 그러나 수화를 하는 동안에 실제로 형과 동생이 수화자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과 동생의 위치는 두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 언어 안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화 공간 안에서 두 개의 추상적인 개념을 위치시킬 수 있다. 두 위치를 통하여 수화자는 두 개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며 논의할 수 있다(Sutton-Spence, 1998). 물론 통사적 수화 공간과 지형적 수화 공간이라고 나눈 것은 얼마나 언급되는 대상이 구체성을 띠는가 아니면 추상성을 띠는가에 따라 혹은 아날로그적인 표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수화 공간의 보다 세부적인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보면 Fischer(1978)는 수화가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수화의 구문론에서도 손의 움직임과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성우, 2000)는 점에서 지지된다. 동사를 나타내는 수화의 움직임과 공간에 따라 동작주, 피동작주, 목적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동사의 움직임과 공간의 동시 사용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석동일(1989)에 의하면 수화의 인칭대명사인 <나>, <너>, <그>, <그녀> 등은 동사의 수동 및 수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보다>라는 수화는 “방향 변환 동사”로서 공간을 이용하여 1, 2, 3인칭을 나타낸다. 영국수화(British Sign Language : BSL)의 경우에도 공간을 이용하는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 인칭(person), 상(aspect), 수(numbe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utton-Spence, 1998).

2. 공간 분류의 지지 근거

위에서 제시한 수화공간의 이원적 분류는 좌반구 혹은 우반구에 손상을 입은 농인 수화자를 대상으로 한 Klima와 Bellugi(1987)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우반구 손상은 수화자의 지형적 공간 사용 능력에 손상을 입혔지만 대명사 지시와 동사일치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 사용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우반구 손상 환자에게 「방안의 가구」를 배치하라고 요구했을 때, 피험자는 오른쪽 공간에만 가구를 기술하였다. 물론 분류사(classifiers)를 취하여 가구를 배치하였지만 상당히 혼란스럽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공간을 공지시(coreference)와 동사 일치를 위해 사용할 때는 왼쪽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수화 공간을 사용하였다. 반면 좌반구의 손상을 입은 수화자는 비록 간단하게 수행했지만 공간적 기술을 바르게 산출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대명사 지시와 동사 일치를 위한 공간의 사용에서는 실패를 했다. 더 나아가 Emmorey(1995)는 공간의 통사적, 지형적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문법적 관계들을 표시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서 수화 공간의 사용과 지형적 대응(mapping) 장치로서 사용 간의 명확한 분리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DN은 젊은 건청인 수화자로서(37세) 일찍이 미국수화에 노출되었다. 그녀는 농인의 통역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영어와 미국수화의 이중언어자였다. DN은 두정-후두부-혈종과 동맥형 기형의 외과적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6개월 뒤에 받은 MRI 검사에서 우세한 중앙부 상부 후두골-두정 손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우반구 손상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지시적 사용에는 손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비언어적 공간인지능력(nonlanguage spatial cognitive abilities)에서는 약간의 혼란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공간의 통사적 사용과 지형적 사용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

3. 공간의 기능

1) 통사적 공간 사용

수화 공간이 통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부터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사적 기능의 다양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칭

대명사 중에 사람을 대신하여 쓰이는 전형적인 것을 인칭대명사라 한다. 대화상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것 즉 주어진 정보를 다시 말하려할 때 화자와 청자는 의사전달을 쉽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정보를 간단한 대형태로 바꾸어 표현하거나 생략시켜 버린다. 대화에서 같은 명사가 되풀이된다면 보다 의미를 잘 나타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느낌을 주어 자연스러운 대화로는 부적합하다(강사회, 1980). 이와 같이 음성언어인 국어의 경우에는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어휘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화자, 청자의 연령, 성별, 친근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대명사의 형태가 달라진다(김향미,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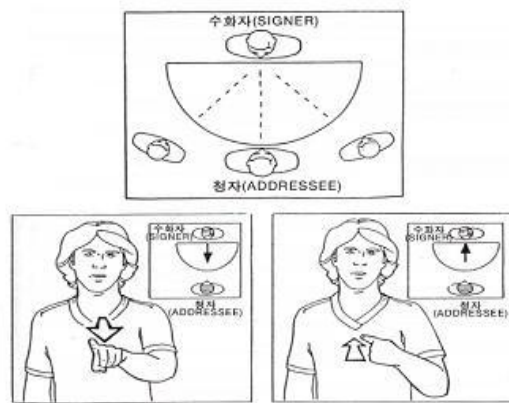
한국수화의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높임말, 예사말, 낮춤말 기호 간에 차가 없으므로 예사말을 나타내는 기호만 있다고 할 수 있다(김승국, 1994). 그러나 한국수화의 담화 상황에서는 어휘적인 수화단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화의 독특한 표현방법인 지시와 공간 사용으로 실현된다. 농인들은 담화 상황에서 인칭을 표현하는 어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지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이에 수화자들은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혼동하지 않는다.

석동일(1989)에 의하면 한국수화의 인칭대명사인 <나>, <너>, <그>, <그녀> 등은 동사의 수동 및 수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사의 동작 및 방향에 의해서 인칭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또한 동사의 변용에 의해서 인칭대명사를 생략하여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동사를 “방향 변환 동사” 혹은 일치동사라고 한다. 특히 일치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와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운다. 하지만 <알다> 수화는 방향성이 없는 수화단어(신체에 접촉 또는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수화)임으로 운동의 시작점 및 종결점을 화자 이외에 다른 위치로 가져갈 수 없음으로 상체 이동에 의해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낸다.

미국수화는 시각-제스처어적 언어(visual-gestural language)로서 담화 내에서 개인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공간을 폭넓게 사용한다. 미국수화의 인칭대명사의 형식은 검지만 펴서 주먹 권 손의 모양 즉 ‘지시하기’ 수형이거나 ‘G수형’ 이고 수화자의 앞가슴-수준의 수평적 지점을 따라 수화 공간 내의 지점을 향한다. 일인칭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시하기는 수화자의 가슴을 향한다. 이인칭은 청자의 가슴 앞 지점을 향한다(McBurney, 2002). 하지만 위치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적 장치인 직

시적인 지적(deictic pointing)은 비언어적인 제스처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실-세계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시물을 위한 추상적인 위치도 설정하기 때문이다(Supalla, 1991). 최근의 수화의 인칭 연구에서 특히 미국수화는 일인칭과 비일인칭(first/nonfirst)을 제안한다(Meier, 1990). 기존의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의 삼분법에서 이인칭과 삼인칭 사이의 문법적 차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인칭 대명사는 삼인칭 대명사와 동일한데 차이는 화용적 차원에서 가능하다. 청자의 위치는 그 자체로 결정될 수 있는 문법적 시스템이 아니며 삼인칭을 위한 지시 지점도 무한하여 둘 사이는 구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수화에서 인칭은 일인칭과 비일인칭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인칭은 지시물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지시물이 존재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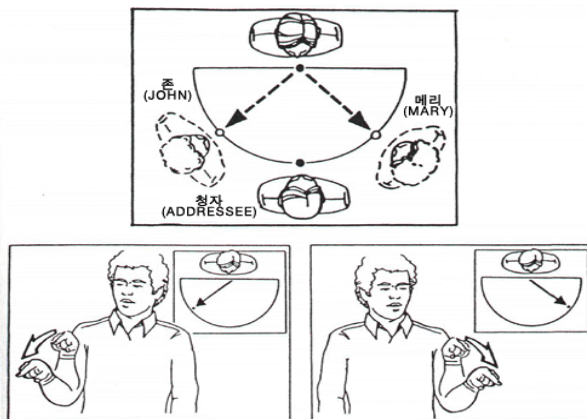
<그림 1> 지시물이 존재할 경우의 대명사 형식(대명사 ‘너’ 와 ‘나’)

출처 : Lillo-Martin, 1990.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 상황에서 ‘나’ 와 ‘너’ 를 언급하기 위해 대화자들은 지시 수형으로 자신을 향해 지적함으로써 일인칭 ‘나’ 를, 그리고 상대를 향해 지시함으로써 이인칭 ‘너’ 를 나타낸다.

② 지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시물은 수화하는 공간에서 임의의 장소들과 관련된다. 그림 2와 같이 대화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할 때 청자의 왼쪽을 지적함으로써 존(John)을, 청자의 오른쪽을 지적함으로써 메리(Mary)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지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대명사 형식(출처 : Lillo-Martin, 1990)

스웨덴수화(Swedish Sign Language : SSL)의 경우 음성언어인 스웨덴어는 인칭대명사에 대한 특정 범주가 있으나 스웨덴수화에서는 그러한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웨덴수화에 대명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칭을 위한 위치 지시(location deictic)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 범주는 언어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언어양식(청각-음성 대 시각-운동)에 의해 동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시물을 설정하기 위한 지시하기는 특정 지시물을 언급하는 대명사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공간 내에서의 위치들은 수화의 문법의 한 부분으로 고려된다. 즉 지시 지점들은 대명사적 지시의 기초를 구성하고 담화 상황에서 인칭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cBurne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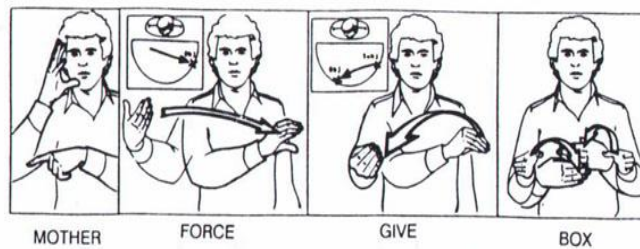
(3) 주어와 목적어 표지

수화에서 동사는 일치동사(agreement verbs), 공간동사(spatial verbs), 일반동사(plain verbs)로 나뉜다. 이는 각국의 수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형태적 기준으로 나누거나 혹은 논항구조에 따라 나누는(Rathmann & Mathur, 2002) 등 학자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동사의 굴절 유무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일치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와 일치한다. 즉 동사의 시작점으로써 주어를 위한 위치와 끝점으로써 목적어 위치를 사용한다. 동사의 움직임 즉 경로(path)는 주어와 목적어 논항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일치동사는 논항 접사의 순서에 따라 순행동사(regular verbs)와 역행동사(backward verbs)로 하위분류된다.

미국수화 담화에서 동사일치 체계는 대명사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공간화된다. 많은 동사들은 수화 공간에서 추상적인 공간들 사이를 움직임으로 동사의 주어

와 목적어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인칭과 수를 표지한다(Bellugi, 1990). 아래의 그림 3은 동사일치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예문 1)에서 동사 <FORCE>와 <GIVE>는 지시 지점 i, j, k사이를 움직인다. ‘엄마’와 ‘그’, ‘그녀’를 지시한 지시 지점을 통해 주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1) “엄마_i가 그_j에게 그녀_k에게 상자를 주라고 하셨다”
 (Mother_i forced him_j to give her_k the box.)



<그림 3> 동사일치(출처 : Bellugi, 1990)

2) 지형적 공간 사용

수화에서 공간은 언어적인 기능을 위하여 사용됨과 동시에 직접적인 공간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수화가 조음되는 공간은 물체와 사람 혹은 사람과 사물간의 위치와 방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화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들은 지형적 방법(topographic manner)과 부합된다. 공간적 배치에서 사용된 언어적 약속은 위치가 정해진 어떤 수화 형식, 가령 분류사(classifiers)에 의해 매우 기하학적이고 비임의적인 방식에서 사물들의 위치를 명확히 말하여 준다(Emmorey, 2002). 대부분의 음성언어는 전치사와 접사로 공간적 관계를 부호화한다. 즉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표시하는 단순한 문법적 요소가 있다. 가령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음성언어에서는 ‘책상 위에’라는 전치사구는 책상 위에 컵이 위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수화는 분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정보를 전달한다. 수화자는 컵을 지시하는 C분류사 수형(한 손을 알파벳 C모양이 되도록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붙여 구부린다)을 테이블을 지시하는 B분류사 수형(한 손을 펴서 평평한 모양을 만든다) 위에 위치시킬 것이다. 물론 수화에도 사물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지만 어휘를 통해 표현하기보다는 수화 공간에서 손의 위치와 묘사되는 물체들 간의 도식적이고 동형적인 배치를 통해 표현한다(Emmorey, 2002).

4. 공간의 언어적 기능에 대한 이견

Liddle(2000)은 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 사이의 차이점(Poizner, Klima &

Bellugi, 1987)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즉 실세계에서 대명사적 지시와 동사일치를 위한 위치는 어휘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물리적 위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시물이 물리적인 위치들에서 무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적 특성이나 분리 가능한 형태소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나 물체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때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지시는 대용적(anaphoric)이기보다는 직시적(deictic)인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비분리적인 제스처어 수단에 의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Liddle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공간을 문법적 기능으로 기술해 온 다른 언어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Emmorey, 1995). Emmorey와 Corina 그리고 Bellugi는 언어적 표현에서 기여하는 공간의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Liddle과는 달리 공간의 유형보다는 공간을 두 가지 기능으로 구별하였다. 즉 공간은 전적으로 지시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명사들은 공간적 위치들과 관련이 있고 대명사 혹은 일치동사들은 명사와 함께 공지시으로써 이해되는 공간적 위치들을 향하여 지시된다.

또한 담화에서 지시를 위해서 사용된 이러한 위치는 기억에서 더 잘 사라진다. 즉 대화자가 통사적 공간을 위해 위치를 지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지시는 담화 내에서만 유지되며 담화가 종결됐을 경우에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위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적 위치는 의미적 표상의 부분으로써 기억에서 강력하게 부호화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수화에서 공간은 다기능적(multifunctional)이다. 이 기능들은 구별되는 신경학적 기질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과정을 보여준다(Emmorey, 1995).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함으로 시각-제스처어 언어라는 양식(modality)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각 나라의 수화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참고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 농인의 수화를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농사회(deaf society)에서 살아 가고 한국수화를 주된 의사소통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20-50대의 수화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농인으로 선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령별은 20대 후반이 6명,

40대 후반이 2명, 50대 초반이 1명으로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작게는 3명, 많게는 5명 씩 그룹을 지어 대화에 참여하였다.

2. 자료수집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에서의 지시기능, 특히 인칭과 관련된 지시적 표현은 대화자들 간에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 나타나는 요소임으로 담화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즉 지시적 표현은 문장이나 담화 차원과 연결되는 요소임으로 농인들의 담화를 수집하였다. 수화는 시각-제스처 언어로써 문자가 없으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비디오로 수화문을 촬영하였다. 자연적인 대화 상황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화의 주제는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해졌으며 대화의 시작과 종결도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 정해졌다. 각 대화의 길이는 대략 30~4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 (1) 각 연구대상자의 대화 내용 중에서 공간의 통사적 사용 부분을 선별한다.
- (2)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장면의 대화 내용을 수화단어를 해당 한글로 이기한다.
- (3) 한글로 이기 된 수화문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문으로 표기하였다.
- (4) 수화그림은 미국수화 연구물(Lillo-Martin, 1990)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여 제시하였다.
- (5) 수화문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 기호들은 미국수화의 수화표기법(Emmorey, 1995)과 국어의 지시기호 표기 방법(황유미, 2001)을 참조하였다.

< 표 1 > 기호 설명

| 기 호 | 기 호 설 명 |
|---------------------|---|
| 지시s | 아래첨자 's' 는 공간적 위치를 나타낸다 |
| / | '사선' 은 동시에 양손으로 두 가지 수화를 함을 나타낸다 |
| - | 연자 부호 '-' 는 지문자를 나타낸다 |
| j말하다 _A | <말하다>동사가 j지점에서 A지점으로 움직임을 의미한다 |
| RS _A < > | RS는 지시적 이동(referential shift)을 나타내며 아래첨자 _A 는 지시적 이동을 하는 지시물을 의미한다 |
| < > | < >는 개별 수화 단어를 나타낸다 |

IV. 연구결과

한국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으로써 인칭, 지시표현, 지시적 이동, 주어와 목적어 표지, 동사표현, 비교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에서의 통사적 실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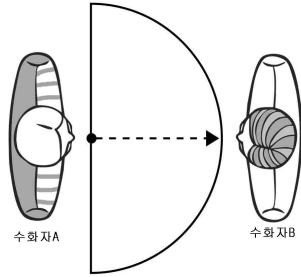
1. 인칭

한국수화의 인칭은 대화 상황에 지시물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대화문에서 대화 상황에 지시물이 존재할 경우와 지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시물이 대화 상황에 존재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수화자B : 결혼 + 이야기 + 지시 _A + 역사 + 결혼 + 지시 _A | 수화자B : 결혼이야기 해 주세요. |
| 결혼 + 인기 + 무엇 + 발생/의문 표정 | 결혼하신 비결이 뭐예요? |
| 수화자A : 나 + 결혼 + 옛날 + ○○교회 _j + 지시 _j + 사모님 + 연결 + 결혼 + 되다 | 수화자A : 옛날에 ○○교회 사모님이 연결 시켜 주셔서 결혼하게 됐지. |
| 수화자B : 결혼 + 그러나 + 무엇 + 행동 + 어떻게/의문 표정 | 수화자B :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셨어요? |
| 수화자A : 웃다 + 때문에 + 매력 + 결혼 | 수화자A : (나의) 웃는 모습에 반해 결혼하게 됐지. 남편이 나의 웃는 모습이 매력이 있다고 말했어. |
| 나 + 남편 _j + _j 말하다 _A + 맞다 | |
| 웃다 + 때문에 + 매력 + _j 말하다 _A + 지시 _j | |

지시A와 지시B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자와 수화자를 가리킨다. 즉 ‘나’를 말하고자 할 때 수화자는 오른손 검지를 펴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가리킨다. 이는 일인칭인 화자를 의미한다. 또한 ‘너’를 말하고자 할 때 수화자는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 직접 가리킨다. 이는 이인칭인 청자를 의미한다. 한국수화의 인칭은 지시물이 대화 상황에 존재할 경우에는 지시물을 향해 직접 가리키는 지시수형을 통해 실현된다. 지시수형은 그림 5처럼 검지를 펴고 다른 손가락은 접은 형태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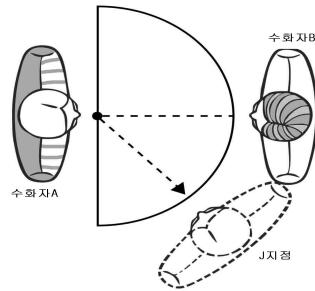
<그림 4> 지시물이 대화 상황에 존재할 경우



<그림 5> 지시수형

2) 지시물이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을 언급할 때 수화 공간의 임의의 지점을 사용한다. 지시j는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와 다음에 나오는 남편을 언급하는 것임으로 수화자는 수화 공간에서 j 위치를 지시하였다. 즉 구체적인 교회 이름을 명시하고 그 다음은 수화 공간의 임의의 지점(j)을 지시한다. 설정된 j지점은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대신 사용되었다. 또한 지시j는 다음 문장에서는 남편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위치는 <남편>이라는 수화 단어가 이미 언급되었고 <말하다>수화 단어를 통해 미리 남편의 위치가 설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수화의 인칭은 지시물이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화 공간 내의 임의의 지점을 지시수형으로 가리킴을 통하여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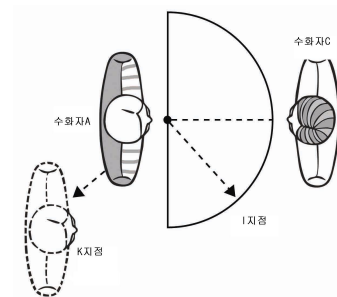
<그림 6> 지시물이 대화상황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2.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의 지시표현

대화 상황에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바뀐다. 즉 화제가 바뀔 때 앞의 대화에서 특정 지시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위치는 다음 대화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A : 지시_k + 나 + 목포 + ○○○_k + 동창_k + 지시_k + 있다 + 강아지_i + 키우다 + 있다 수화 + 잘하다 + 지시_i 강아지_i + 수화 + 잘하다 수화 + 알다 + 보다/묻는 표정 수화 + 알다 + 지시_i + 사랑하다 + 꼬리 흔들</p> <p>수화자C : 정말/놀라는 표정</p> <p>수화자A : 수화 + 알다/강한 긍정의 표정</p> | <p>수화자A : 내 동창이 목포에 살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근데 그 강아지는 수화를 잘해. 수화를 아는 강아지를 본적이 있니? (대화자 C를 쳐다본다) 그 강아지는 수화를 알아서 ‘사랑해’ 라고 수화를 하면 꼬리를 흔들어.</p> <p>수화자C : 정말이요?</p> <p>수화자A : (그래) 수화를 알아.</p> |

대화의 주제가 바뀌자 수화자A는 목포에 사는 ‘친구’, ‘강아지’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물을 언급한 후 각 지시물을 위해 지시_k와 지시_i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자는 지시_i를 앞에서 의미하였던 ‘교회’ 혹은 ‘남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는 수화 공간에서 특정 지시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치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가 끝나거나 화제가 바뀔 때 사라지게 되며, 새로운 담화가 시작될 때 다시 설정되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7>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의 지시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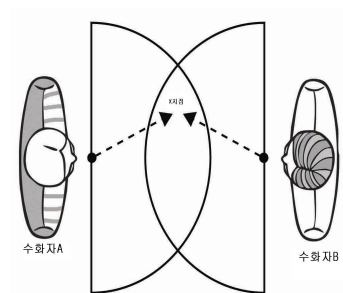
한국수화에서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지시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시지점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되는 것임으로 담화 내에서만 유지되며 담화가 종결됐을 경우에는 사라지게 된다.

3. 공유된 공간 사용

수화자들이 상대방과 마주보며 이야기 할 경우 자신의 수화 공간과 다른 사람의 수화 공간이 겹쳐질 수 있다. 즉 수화 공간이 공유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공유된 공간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B : ○○○사장_x + 지시_x + 말 + 권력 + 좋 다 + 말 + 듣다 + 지시_x 나 + 하다 + 되다 + 시위 + 하다 + 되다 + 말 + 강하 다 성격 + 있다 + 무섭다 지시_x + 말하다 + 무엇 + 권력 + 되다 + 국회 + 앞 에 + 시위 + 하다 + 되다 + 말 시위 + 잘하다 + 지시_x 시위 + 많다 + 지시_x + 경험 + 많다 + 같다</p> <p>수화자A : 많다 지시_x + 농인 + 좋다 + 돕다 + 헌신 + 잘하다 + 지 시_x + 유명하다 분위기 + 조금 + 문제 + 있다 + 그러나 + 잘하다 + 지시_x 지시_x + 좋다 + 사람 + 지시_x ... (생략) ...</p> | <p>수화자B : 나는 ○○○사장이 권력이 좋다 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시위를 해야된다고 너무나 강하게 말해요. 성격이 무서워요. ○ ○○사장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된 다’ 고 했어요. 정말 시위를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아요.</p> <p>수화자A : 그래, 시위 경험이 많아. 그는 농 인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며 잘하는 걸로 유 명하지. 물론 그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잘해... 정말 좋은 사람이 야. ... (생략)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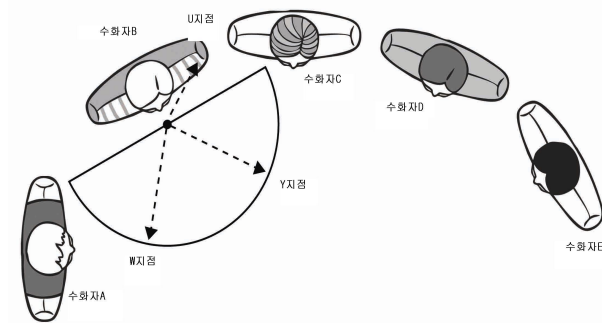
위 대화에서 두 수화자는 ○○○사장을 언급하
기 위해 자신들의 앞에 있는 x위치를 사용하였다.
즉 두 수화자는 둘 사이에 겹쳐진(overlapped) 수화
공간을 공유하였다. 제3자인 ○○○사장은 이미 두
수화자에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겹쳐지고 공유되는 수화 공간은 아마도 수화자들이
이미 잘 아는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수화자들은 자신의 수화 공
간과 겹쳐진 공유된 공간을 사용하도록 시도할 것
이다. 그러나 수화자는 분리된 수화 공간도 유지하려고 한다(Emmorey, 2002). 한국수화
에서 대화자들이 동일한 지시물을 언급하기 위해 자신들의 수화 공간이 겹쳐진 공유 공
간 내에 있는 동일한 지시 지점을 지시한다.



<그림 8> 공유된 공간 사용

4. 서로 다른 지시물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자연스런 대화에서 등장하는 지시물은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대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여러 지시물들이 동시에 언급될 경우 수화 공간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서로 다른 지시물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B : 컴퓨터 + 데-프_y + 지시_y + 한국 + 지시_u + 나라 + 지시_y + 모이다 + 행사 + 때문에 + 한국 + 원하다 + 모이다 + 세다 + 20 + 모이다 + 20 + 비행기_u + 지시_w + 이야기 + 행사</p> | <p>수화자B : 데프TV에서 미국의 THE DEAF WAY 행사에 갈 사람을 모집했는데 한국에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0명이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 바로 그 이야기이다.</p> |

대화의 주제는 2002년 8월 미국의 갈로넷대학교에서 있었던 제2회 THE DEAF WAY 행사에 관한 것이었다. 수화자B는 수화자E가 꺼낸 화제를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화자A, C에게 보충·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지시_y는 데프TV를, 지시_u는 갈로넷대학교를 그리고 지시_w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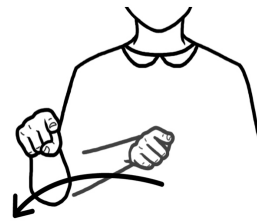
즉 구체적인 사람, 사물, 전언을 다시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지시는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응적 표현이다. 한국수화에서 서로 다른 여러 지시물들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수화 공간의 여러 다른 위치들을 사용한다.

5. 지시물이 복수일 경우

한국수화의 지시표현은 특정 위치를 지시함으로써 단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인칭의 경우 “그들” 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복수의 표현은 수화 공간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B : 오늘 + 지시_h(복수) + 대학원 + 다니다 + 사람 + 많다 + 지시_h(복수) ○○○, △△△ … + ×××_h ×××_h + 알다/의문 표정 + 누구 + 알다/(의문 표정)</p> <p>수화자C : 알다 + ×××_h</p> <p>수화자B : 맞다 + ×××_h + 나 + 놀리다 + 나 처음 + 보다 + 치아 교정기 + ×××_h + 놀리다 일원동 + 일하다 + 때 + 나 + 만들다 지시_h + 그냥 + 얼굴 + 만들다 + 없다 + 지시_h 지시_h + 부끄럽다 + 싫다 + 부끄럽다 + 싫다 + 때문에 + 놀리다 + ×××_h</p> <p>수화자C : ~대로 + 받다/의문 표정 … (생략) …</p> | <p>수화자B : 요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 ○○○, △△△ … + ×××. ×××이 누구인지 알아?</p> <p>수화자C : 알아. ×××이잖아.</p> <p>수화자B : 맞아. 내가 ×××를 놀렸었지. ×××를 처음 봤을 때 치아교정기를 하고 있었거든. 일원동에서 함께 일할 때 수화이름을 내가 만들어줬어. 수화이름이 없었거든.</p> <p>수화자C : (놀리는데도 수화이름을) 만들어 주는 대로 받아? … (생략) …</p> |

수화자들은 제3의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수화자B는 요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 지시물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가슴 앞 공간에서 지시수형을 반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한국수화에서 지시물이 복수일 경우에는 지시수형을 지시물들을 위해 설정한 위치에서 반원을 그리며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의 움직임은 복수를 표지하는데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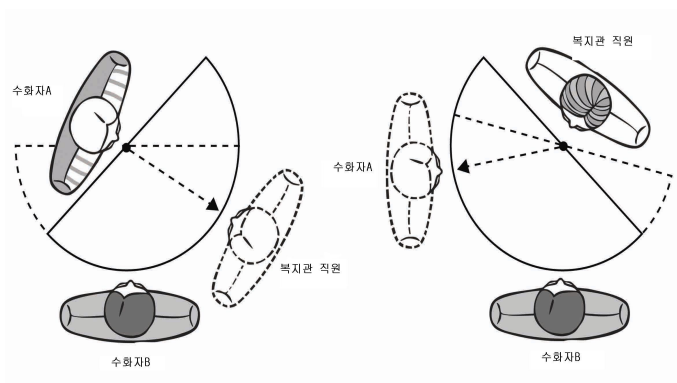


<그림 10> 복수를 나타내는 지시수형

6. 지시적 이동

한국수화에서 지시물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수화 공간 내의 위치를 지적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화자의 상체를 움직임으로써 표현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수화자가 두 명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시적 이동(referential shift)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A : 농인 + 대부분 + 지시_k + 싫어하다 나머지 + ××_q + 사람_q(복수) + 괜찮다 나머지 + ××_q + 지시_q(복수) + 괜찮다 지시_i/○○복지관 + 안되다</p> <p>나 + 옛날 + 지시_j + 가다 + ~적 + 있다 RS_A <나 + 일 + 구하다 + 부탁하다> 나 + 미혼 + 때 + RS_A <일 + 부탁하다></p> <p>RS <나 + 얼굴 + 모습 + 얼굴 + 보다 + ~면 + 일 + 능력 + 없다 + 말 + 나> 얼굴 + 지시_j + 예의 + 없다 나 + 기분 + 나쁘다 + 지시_j 얼굴 + 모습 + 보다 + ~하지마 + 지시_j</p> <p>RS_A <나 + 미성 + 자격 + 있다> RS_A <미성 + 오래 + 되다 + 나 + 3년 + 되다 + 지시_j></p> <p>RS_j <얼굴 + 모습 + 보다 + 너 + 능력 + 없다></p> | <p>수화자A : 농인들 대부분은 ○○복지관을 싫어해. 다른 ××들의 관계자들은 괜찮지만 ○○복지관은 좋지 않아.</p> <p>나도 미혼 때 일을 구하러 갔던 적이 있어. “일을 구하러 왔는데요” .</p> <p>(대화자A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일할 능력이 없는 거 같군요” .</p> <p>(기분 나빠하며) “미성 일을 할 수 있어요 경력도 3년이나 되는데요” .</p> <p>“당신의 외모를 보니 일할 능력이 없는 거 같군요”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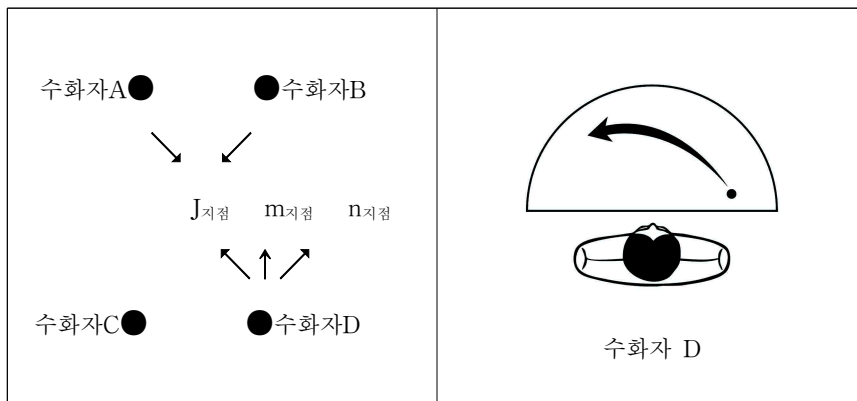
<그림 11> 지시적 이동

수화자들은 ○○복지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화자A는 자신이 ○○복지관에 취업을 의뢰하기 위해 갔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수화자A)과 ○○복지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화자A는 자신의 어

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얼굴 표정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복지관 직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적 이동을 통해 수화자는 담화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청자를 응시할 뿐 아니라 담당할 역할과 관련된 얼굴 표정과 자세를 취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몸을 이동하는 것은 특정 역할의 표지가 된다. 즉 한국수화에서 수화자는 자신의 몸의 위치와 방향, 얼굴표정을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두 사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직접 인용문의 형식을 취하여 표현할 수 있다.

7. 수화 공간 안에서의 동사 표현

한국수화의 동사 가운데 일부는 공간과 관련되어 산출된다. 수화 공간 안에서의 동사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수화 공간 안에서의 동사 표현 : <n미사일 폭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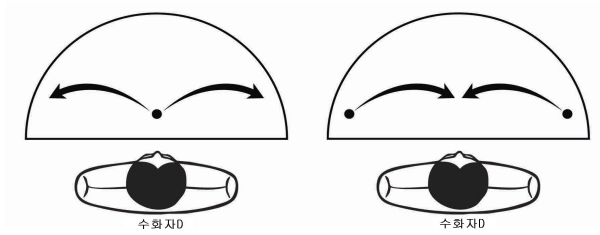
수화자들은 4월에 있었던 이라크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시i는 수화자A, 수화자B, 수화자D 모두가 ‘이라크’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지시 지점이다. 이것은 이라크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지시n은 처음에는 미국을, 그 다음에는 ‘이라크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지시m은 ‘국제법 위반’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수화자D는 지시n을 계속적으로 미국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대화 도중에 이라크의 날씨를 이야기할 때는 이라크의 날씨로 일관성이 있게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라크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다음은 미국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라크의 날씨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수화자D는 미국이 이라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부분에서 미국을 대신 지시한 n지점에서 이라크를 대신 지시한 i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즉 <n미사일 폭격>에서 보듯이 동사가 지시 지점과 연결되어 실

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자A도 <보다>동사를 자신의 신체에서 이라크를 지시한 i 지점으로 이동하여 산출하였다(A보다i). 한국수화의 동사의 일부는 존재하는 지시물들을 위한 실제 위치들과 일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명사를 위해 설정된 추상적인 위치들과 일치하여 실현된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D : 전쟁 + 국제 + 법 + 민-간-인 + 사살하다 + 있다 + 가능하다 + 없다</p> | <p>수화자D : 국제법으로는 전쟁 중에 민간인을 사살할 수 없어. 만약 민간인을 사살한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지. 미국이 임의로 민간인을 사살한 건 아니야. 미국이 무조건 국회, 공장, 집, 아파트, 학교를 공격했다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p> |
| <p>만약 + 사살하다 + 동시에 + 지시_m + 법 + 위반 + 지시_m</p> | <p>수화자B : 저도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수화자A : 바그다드의 대통령궁만이 아니라 오히려</p> |
| <p>미국_n + 알아서 하다 + 보통 + 사람 + 사살하다 + 행동 + 아니다 + 지시_n</p> | <p>민간인의 집이 공격을 받아 무너진 것을 보니 화가 나오.</p> |
| <p>_n미사일 폭격_i + 하다 + 지시_i + 정치 + 폭발하다 + 국회 + 하다 + 공장</p> | <p>수화자D : 아니야. 미국은 잘못이 없어. 왜냐하면 이라크의 날씨 때문이야. 이라크 지역이 사막이어서 모래바람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불었어.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이야. 미국이 애를 먹었지.</p> |
| <p>미국_n + 무조건 + _n폭격하다_i + 집 + 아파트 + 병원 + 학교 + 폭발하다</p> | <p>...(생략)...</p> |
| <p>만약 + 미국_n + 폭발하다 + ~면 + 미국 + 동시에 + 국제 + 지시_n + 법 + 위반</p> | |
| <p>지시_n + 때문에 + 마음대로 + 안되다</p> | |
| <p>수화자B : 듣다 + 소문 + 말 수화자A : 옛날 + 무엇 + 바-그-다-드 + 도시 + 대통령 + 빌딩 + 곳 + ~만 + 오히려 + 집 + 무너지다</p> | |
| <p>+ 하나다 + 지시_i + A보다_i 수화자D : 아니다 + 미국_n + 잘못 + 없다 + 왜</p> | |
| <p>예를 들면 + 미국_n + 날씨 + 바람 + 분간하다 + 지시_n</p> | |
| <p>모래 + 바람이 눈앞에서 불다 + 시야를 구분을 구분할 수 없다 + 어렵다 + 지시_n</p> | |
| <p>지시_n + 이라크 + 괴팍하다 + 지시_n</p> | |
| <p>바람 불다 + 바람이 눈앞에서 불다 + 첫 번째 + 낮 + 덥다 + 밤 + 춥다 + 지시_n</p> | |
| <p>암체 + 날씨 + 지시_n + 때문에 + 미국_n + 생명 + 대하여 + 정말 + 무섭다 ... (생략)...</p> | |

8. 주어와 목적어 표지

한국수화는 동사의 움직임과 공간에 따라 동작주와 피동작주, 목적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즉 동사의 움직임과 공간의 동시 사용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수, 위치 등을 나타낼 수 있다(안성우, 2000). 한국수화의 주어와 목적어 표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주어와 목적어 표지 : <신체돈을 해외로 보내다신체밖> 와 <신체밖입국하다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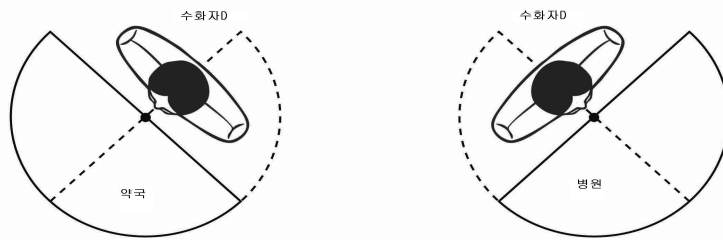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D : 이-민-법_o + 발견하다 + 지시_v 이-민-법_o + 처음 + 아니다 이-민-법_o + 발견 + 무엇 예를 들면 + 지시_v + 다른 + 멕시코 + 프랑스 + 여 러 가지 + 모이다 + 불법 + 체-류 + 돈 + 달러 + 밖으 로 나가다 + 보내다 + 보내다 + 보내다 + 보내다 + 미 국 + 돈이 줄어들다 + 알 ... (중략)...</p> <p>미국 + 입국하다 + 이-민-법_o + 옛날 + 미국 + 허 락하다 + 입국하다 + 불법 + 신체돈을 해외로 보내다신 체밖 + 회의 + 달러 보유액이 감소하다 + 적자 + 늘 다 + 모르다 + 경제 + 어렵다 + 무엇 + 자세 히 + 이- 민-법_o + 책상 침 + 지시_v.</p> <p>때문에 + 미국 + 공식적 + 발표하다</p> <p>이-민-법_o + 올해 + ~부터 + 미국 + 신체밖비행기(입 국하다)신체 + 대하여 + 금지하다 + 원래 + 허락 + 입 국하다 + 자격 + 있다 + ~야 + 되다 + 첫 번째</p> <p>두 번째 + 지시 + 재산 + 3만 + 이상 + 허락하다 + 법 + 조건 + 발표하다</p> <p>자연히 + 줄다 + 줄다 + 줄다 + 줄다 + 경제 + 회 복 + 미국 + 부자 + 되다 + 지시_v</p> | <p>수화자D : 그것은 다른 아닌 이민법이었어. 예를 들어 멕시코,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 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달러를 자신들의 나라로 보내고 있었지. 자연히 미국 내의 달러 들은 줄어들게 된 거지. ... (중략)...</p> <p>미국은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달러보유 액이 감소하고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이 민법에서 발견했어. 이로써 미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지. 이민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자격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음을.... 재산이 3만불 이상 되어야 입국이 가능하 다는 법적인 조건을 발표하였어. 이로써 이민 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었어. 결국 미국은 경 기가 회복되고 부자가 되었지.</p> |

대화의 주제는 「미국의 경제난 극복」에 관한 것이었다. 심각한 경제난 가운데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계속된 회의 끝에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이민법이었다. 수화자D는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달러가 각 국에서 몰려온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할 때는 <‘신체돈을 해외로 보내다신체밖>과 같이 자신의 몸 앞에서 <보내다>수화를 자신의 양옆으로 동시에 표현했다. 이는 달러가 미국(자신의 몸)에서 해외(자신의 양 옆)로 유출됨을 나타낸 것이며, 양손으로 수화 동작을 여러 번 수화를 함으로써 많은 돈이 각 나라로 유출됨을 나타낸 것이다. 즉 반복되는 동작에 의해 양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신체밖입국하다신체>은 각 국을 의미하는 자신의 양옆 공간에서 <들어오다>수화를 자신의 몸 쪽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들어오다>, <보내다> 등의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는 생략되었지만 지시 지점과 공간 안에서의 동사의 움직임을 통하여 확인되어졌다.

한국수화에서 동사의 일부는 지시 공간과 관련되어 이동한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각 지시 지점에서의 동사의 움직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비교 표현

한국수화는 두 개의 추상적인 개념을 비교 기술할 때 수화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14> 비교표현 : <약국>과 <병원>의 내용에 대응되는 공간 사용

수화자D는 한국의 「약사법개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수화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즉 약국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왼쪽에서, 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오른쪽에서 수화를 하였다. 따라서 수화자는 <병원>, <약국>이라는 어휘를 반복하지 않는다. 청자는 수화가 구별해서 산출하는 위치를 보고 병원에 관한 이야기인지 혹

은 약국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구별한다. 한국수화에서 두 개의 추상적인 개념을 비교 기술할 때 수화 공간의 양쪽에 각각의 비교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다.

| 【수 화 문】 | 【해 석 문】 |
|--|---|
| <p>수화자D : 한국 + 약 + 법 + 법 + 시위 + 동기 + 방법 + 자세히 + 보다 + ~면 + 지시_t + 진찰 + 약 + 일거양득 + 지시_t + 같다</p> <p>병원_t + 진찰 + 약 + 사다 + 지시_t + 약국_s + 손님 + 줄다</p> <p>지시_t + 병원_t + 인기 + 손님이 몰리다 + 사다 + 사다 + 사다 + 지시_t</p> <p>약국_s + 장사 + 막히다 + 지시_s + 기분이 나쁘다 + 자연히 + 지시_s + 기분이 나쁘다 + 회원 + 연합하다 + 시위하다</p> <p>지시_t + 장사 + 마음대로 + 안되다 + 지시_s + 죽다</p> <p>때문에 + 법 + 제출하다 + 자연히 + 두 가지 + 나뉜다</p> <p>지시_t + 진찰하다 + 1 + 약 + 사다 + 말다 + 영어 + 쓰다 + ~대로 + 약국_s + 주다 + 사다 + 가져가다 + 자연히 + 이익 + 반 + 나누다 + 같다</p> | <p>수화자 D : 한국에서 「약사법개정」에 대한 시위가 있었어.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찰도 하고 약도 조제하기 때문이야. 병원에는 진료와 약 조제 손님이 만원을 이루는데 반해 약국은 장사가 안되고 이에 약국은 감정이 상하게 되었어.</p> <p>결국 약사 들은 서로 연합하여 시위를 했지. 병원이 마음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되지. 그러면 약국은 문을 닫게 되지. 그래서 법원에 「약사법개정」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결국 두개로 나뉘게 된 거야. 병원에서는 진찰만 가능하고 약은 조제할 수 없어.</p> <p>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면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거야. 이로 인해 이익은 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야.</p> |

V. 요약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을 문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의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사적 기능의 장소로 살펴보았다. 한국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의 실현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화에서 인칭은 지시수형으로 가리킴으로 실현된다. 대화 상황에 존재하는 지시물은 대상을 직접 가리키며,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지시물은 그와

공지시적으로 해석되는 임의의 지점을 가리킨다. 인칭은 물론 사물, 전언을 지시하기 위해 설정된 위치는 해당 지시물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각 지시 지점과 지시물, 즉 두 요소는 공지시적이다.

둘째, 지시 지점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지시 지점의 대부분은 수화자의 가슴 앞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수화자의 뒤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동일한 지시물을 언급할 때는 자신들의 수화 공간이 겹쳐진 공유 공간 내에 있는 동일한 지시 지점을 지시한다.

셋째, 수화자는 자신의 몸의 위치와 방향, 얼굴표정을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두 사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수화자가 상황을 재현하듯이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는 얼굴 표정이나 시선,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한다.

넷째, 한국수화의 일부 동사는 지시물들을 위한 실제 위치들이나 지시물을 위해 설정된 추상적인 위치들 사이에서 움직인다. 각 지시 지점 사이를 움직이는 동사를 통하여 수동과 피동, 주어와 목적어가 표현된다.

다섯째, 두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수화 공간의 양쪽에 즉 왼쪽과 오른쪽에 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수화한다. 이는 한국수화의 시각-제스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개념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수화 공간을 나누어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화 공간은 개별 수화 단어가 산출되는 물리적 장소라는 개념을 넘어서 인칭, 지시표현, 지시적 이동, 동사의 주어 목적어 일치, 비교표현 등 문법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통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화 공간이 통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전 세계 수화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한국수화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수화공간의 통사적 기능은 청각 장애를 지도하는 교사들과 농아동의 수화지도에 반영되어질 수 있으며 향후 수화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회 (1980). 인칭대명사의 화용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승국 (1982).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김승국 (1994). **한국수화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김향미 (1994). 인칭지시어(Personal deixis)의 화용적 의미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안성우 (2000).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제 2회 공개 연구 발표회: **수화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

- 미나. 인천: 한국수화연구회.
- 황유미 · 남기춘 · 강명윤 (2001). 실어증 사례를 통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음적 대명사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31-159.
- Bellugi, U., O'Garady, L., Lillo-Martin, D., O'Grady, H. K., Hoek, V., & Corina, D. (1990). Enhancement of spatial cognition in deaf children. In V. Volterra & C. J. Erting(Eds.), *From gesture to language in hearing and deaf children*(pp. 278-298). Berlin: Springer-Verlag.
- Emmorey, K. (1993). Processing a dynamic visual-spatial language: Psycholinguistic studies American sign language. *Journal Psycholinguistic Research*, 22(2), 153-187.
- Emmorey, K., Corina, D., & Bellugi, U. (1995). Differential processing of topographic and referential functions of space. In K. Emmorey & J. S. Reilly(Eds.), *Language, gesture, and space*(pp.43-6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mmorey, K. (2002). The effects of modality on signed language how signers and speakers talk about space. In R. P. Meier., K. Cormier & D. Quinto-Pozos(Eds.), *Modality and structure in signed and space languages*(pp.405-421). NY: Cambridge University.
- Fisher, S. & Gough, B. (1978).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Harry van der Hulst & Anne, M. (1996). Issues in sign linguistics: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syntax. *Lingua*, 98, 3-17.
- Klima, E. S., & Bellugi, U.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Lillo-Martin, D. (1985). The acquisition of spatially organized syntax.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24, Aug, 70-78.(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62 568)
- Lillo-Martin, D. & Klima, E. (1990). Pointing out differences: ASL pronouns in syntactic theory, In S. D. Fisher & P. Siple (Eds.),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Linguistics*(pp.191-209).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 Liddell, S. K. (2000). Blended spaces and deixis in sign language discourse. In D. McNeill (Ed.), *Language and gesture 2*(pp.331-357). NY: Cambridge University.
- McBurney, S. L. (2002). Pronominal referenc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 Are grammatical categories modality-dependent? *Modality and structure in signed and space languages*(pp.329-367). NY: Cambridge University.
- Meier, R. (1990). Person deixis in American language, In S. D. Fisher & P. Siple(Eds.),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Linguistics* (pp.175-190).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 Neidle, C., Kegl, J., MacLaughlin, D., Bahan, B., & Lee, R. G. (2000). *The syntax of American sign language*. NY: Cambridge University.
- Poizner, H., Klima, E., & Bellugi, U. (1987). *What the hands reveal about the bra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Rathmann, C. & Mathur, G. (2002). Unpressed Features of Verb Agreement in Signed Languages.(<http://mmm.lingue.unibo.it/mmm-proc/MMM4/235-250-Rathmann-Mathur-MM4.pdf>)
- Supalla, S. J. (1991). Manually coded English: The modality question in sign language development, In S. D. Fisher & P. Siple(Eds.),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Psychology*(pp.85-109).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 Sutton-spence, R. & Woll, B. (1998).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Syntactic Function of the Sign Space in Korean Sign Language

Nam KiHyu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syntactic function of sign space in Korean Sign Language (KSL). In sign language with features of the visual-gestural, sign space is not only physical space where an individual sign is produced but also linguistic space where noun arrangement, pronominal reference, verb agreement, etc. are actualized (Bellugi, 1990). In other words, sign space is syntactic space, providing linguistic information; however, no study on spatial function in KSL has yet been carried out.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syntactic function of space and its individual realizations, focusing on person, coreference, referential shift, subject-object-verb agreement, and comparison.

As a method, analysis of conversation of deaf adults, living in Seoul, whose first language is sign language, has been carried out in that referential expression as the main spatial function appears in natural conversational situ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KSL has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as well as a universal character of sign language.

Key words: Deaf people, Korean Sign Language (KSL), sign space, personal pronoun, agreement verbs, referent, visual-gestural modality.

논문 접수: 2007. 7. 30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1